

# 지하련 연구\*

- '여성해방주의'와 '고독'을 중심으로

허예슬\*\*

## 차례

1. 서론
2. '여성 문인'이 된 지하련
  - 2.1. 유소년기, 동경에서의 근우회 활동과 '여성해방주의'의 영향
  - 2.2. 임화와의 결혼과 '운동가 남편·아내 서사'의 탄생
3. '비판적 관찰자'로서의 지하련
  - 3.1. 오빠 이상조에 대한 비판적 관찰기-『채향초』
  - 3.2. '배녀주의'의 본격적 형상화, 호모소셜리티(『중매』)와 호모섹슈얼리티(『양』)
4. 해방기, 관찰자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로
  - 4.1.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도정』의 탄생
  - 4.2. 고독의 종착점으로서의 『광나루』와 월북
5. 결론

## 1. 서론

이 논문은 '여성해방주의'와 '고독'을 두 축으로 194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 지하련의 생애 및 사상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논문을 통해 여성해방주의와 여성 지식인 간의 관계를 한국 여성 문학사 속에 배치함에 있어 보다 확장된 시각과 서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 본고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하련 연구-‘여성해방주의’와 ‘고독’을 중심으로』(허예슬, 2019)를 요약·수정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지하련은 분명 오빠와 남편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으며,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들 역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남성들의 질서로부터 단절된 삶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동질감 혹은 안정감이 아니라 불평등한 평화와 질서로부터의 소외, 고독이 나타난다. 더군다나 지하련이 ‘착한’, ‘선량’과 같은 단어를 습관적으로 반복 사용하면서 ‘(질서에 순응하는) 착한 것’에 대해 끊임없는 회의를 한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 그가 반복적으로 기입하고 있는 ‘고독’은 연대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의 맥락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레온 에델(Leon Edel)이 정의한 세 가지 문학 전기 기술 방식 중 하나인, 기록을 “꾸준히 성격 지우고, 코멘트하고, 분석”하는 서술적 회화(omniscient narrator)의 방식을 활용하여 지하련 작가론을 기술할 것이다.<sup>1)</sup> 또한 본고는 기술(記述)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되, ‘자기 서사’의 증거적 성격과 텍스트 전반에 걸쳐 기입된 ‘고독’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sup>2)</sup> 특히 감정은 단순히 개인에게 복속된 특수한 생성물이 아니기에 가부장제, 제국, 해방정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고독의 성격을 구명하고, 설명 가능한 부분에 한해 부분적으로 알맹 바디우의 개념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sup>3)</sup>

지하련과 그의 작품을 구명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sup>4)</sup> 그의 삶과 텍스트에 기입된 여성해방주의는 아직 충분히 읽히지 않

1)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사(三英社), 1983, 185쪽.

2) 자기 서사란, 박혜숙의 개념으로, ‘자신의 일생 전체 혹은 특정한 시점까지를 회고 및 성찰하며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을 의미하는데, 자기 서사의 본질이 과거의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점을 주지한다면 지하련이 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회고까지도 자기 서사에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11쪽을 참조.)

3) 바디우에게 있어 고독이란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진 타자들의 보편적 세계, 다른 말로 ‘질서’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타자들의 보편적 세계와는 다른 특수한 부분집합”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백상현, 『고독의 매뉴얼-라캉, 바디우, 일상의 윤리학』, SFP-위고, 2015, 114쪽 참조.

4) 지하련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서정자, 『일제 강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지하련의 근우회 시절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제대로 주목된 바 없었던 <남성폭격좌담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여성해방주의 사상은 단절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 2. ‘여성 문인’이 된 지하련

### 2.1. 유소년기, 동경에서의 근우회 활동과 ‘여성해방주의’의 영향

지하련이 유학 중이었던 1920년대 중반의 동경은, 학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젠더적 위치를 자각할 수 있었던 최적의 공간이었다. 당시 일본은 여성 교육 방침이었던 양치현모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여학교 교육과 서양에서 유입된 여성해방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sup>5)</sup> 이러한 바람은 일본 내 조선인 여성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기존의 계몽주의계열의 여성단체를 비판하며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단체가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28년 1월 21일 창립된 근우회 동경지회는 후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단체였다.

지하련은 근우회 동경지회의 초기 창립 멤버는 아니었으나, 창립 3개월 후인 1928년 4월 22일에 열린 ‘제2회 근우회 동경지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사무분담에서는 재정부장을 맡게 된

---

접기의 한국여류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60-180쪽; 정영진, 『비운(悲運)의 여류작가 지하련(池河蓮)-남편 임화(林花)의 분신(分身)으로 파멸한 미완(未完)의 문학일생』, 『통한의 실종문인』, 문이당, 1989; 장운영, 『지하련 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임정연, 『시대의 공동(空同), 역사의 도정(道程)을 걸어-지하련의 삶과 문학의 궤적-』, 『이화어문논집』 제41집, 이화어문학회, 2017.

5) 이은경, 『모성·참정권·전쟁 그리고 국가-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6, 81쪽.

다. 그러나 그가 중임을 맡은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지하련을 포함한 근우회 동경지회 임원들이 전국대회와 관련한 본부의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sup>6)</sup> 이 사건으로 인해, 임시전국대회 개최 하루 전날인 1928년 7월 13일, 근우회 본부는 근우회 동경지회의 정권(停權)을 결정하지만,<sup>7)</sup> 동경지회 임원들은 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결정에 항의하였다.<sup>8)</sup>

사건 이후 지하련은 1929년 6월 16일에 열린 ‘제3회 근우회 동경지회 정기총회’에서 정치문화부 상임 및 본부대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또 한 번 중임을 맡게 되는데, 이 시기의 집행부 생활 역시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7월 9일에는 목포지회의 해산에 대해 동경지회가 제출한 성명서가 반동 행위이자 중앙집권제에 대한 무시로 판단되어 한 번 더 정권을 명령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제2회 근우회 전국대회’에 지회 대표로 참석하여 복권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는 등<sup>9)</sup> 이러한 사건들은 지하련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귀국 후 지하련의 행보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보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는 오빠 이상조와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참여하며 연락망을 담당했고, 야마토(山十)제사공장에 위장 취업을 도모하

6) 일제는 개최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근우회의 임시 전국대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본부는 당국과 교섭하는 방식을 통해 토의 내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최 허락을 받아낸 것이 문제였다. 성명서의 제목은 『근우회 임시전국대회(槿友會 臨示全國大會)에 제(際)하여 우리는 이러케 성명(聲名)한다 - 특(特)히 대회대의원제군(大會代議員諸君)에게 격(檄)함』이다. (김인덕 편, 『식민지시대 민족운동사 자료집(植民地時代 民族運動史 資料集)2』, 국학자료원(國學資料院), 1997, 166-168쪽.)

7) 『동경근우지회(東京槿友支會) 정권처분(停權處分)을 당(當)해-대회를 압해두고 본부위원회(本部委員會)의 결의(決議)』, 『중외일보』, 1928.07.14, 2면.

8) 지하련은 대회 세 번째 날에 『현재단(現階段)의 부인운동(婦人運動)』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9) 『동경목포양지회(東京木浦兩支會) 재조직(再組織)과 복권(復權)』, 『동아일보』, 1929.07.29, 2면.

였다. 당시 여공들은 단합력이 매우 좋았기에 파업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었지만 ‘지식인’과 조우할 수 있는 통로는 적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sup>10)</sup> 지하련과 같은 지식인 여성이 위장 취업을 도모한다는 것은 단결력 주도를 위해서라기보다 계몽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여공’ 취업을 선택했던 지하련의 행보에는 계급해방과 여성해방의 필연적 관계를 역설한 근우회 동경지회의 모토가 분명히 잠재되어 있으며, 근우회 해체 이후에도 그 모토를 실천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2. 임화와의 결혼과 ‘운동가 남편-아내 서사’의 탄생

지하련의 율케 허윤주는 지하련이 일본 유학 시기에 임화를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sup>11)</sup> 허윤주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지하련이 1928년 1월 25일부로 KAPF 동경지부의 출판부 임원을 맡았을 당시,<sup>12)</sup> 출판부 상임으로는 이북만이, 정치부에는 이상조가 있었던 것, 그리고 이북만의 동생인 이귀례가 임화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지하련이 이 시기에 임화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다만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는 시점은 1934년 11월 임화가 이귀례와의 결혼을 ‘해소’한 후 병문안을 온 지하련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을 때 부터였다.<sup>13)</sup> 1935년 5월에 임화는 카프 해산계를 제출하고 마산으로 내

10)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1920년대~19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201(Discourse 201)』 제9권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69쪽.

11) 장윤영, 『지하련 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쪽. 면담일자 : 1996년 7월 18일.

12) 『푸로예술동맹(푸로藝術同盟) 동경지부결의(東京支部決議) 조직테변경건의』, 『동아일보』, 1928.02.22, 5면.

13) “시인 임화(詩人 林和), 평양(平壤) 모병원(某病院)에 입원(入院) 신음(呻吟) 중(中), 결혼(結婚)은 해소(解消)하였단가.” 『문단잡사(文壇雜事)』, 『삼천리』 제6권

려가 요양과 창작에 몰두하다, 마산의 한 산사(山寺)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다.

이와 같은 임화의 결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했던 임화가 지하련과의 제도적 결합을 결심한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14)</sup> 지하련과 임화의 결합을 촉발한 본질적인 원인은 두 사람이 예민하게 공유하던 ‘청년의 슬픈 감각’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감각은 이후 지하련의 요양을 위한 귀향으로 인해 각각 서울과 마산에 떨어져있을 때 ‘죽음과도 같은 고독’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고독은 지하련의 소설에 대표적 감정으로 기입되고 임화의 수필에도 등장하는 등,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잘 표현하는 감각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sup>15)</sup>

한편 1938년 2월, 지하련은 자신을 만나던 시기에 임화가 ‘장숙희’라는 이름을 가진 또다른 여성을 만났으며, ‘영문’이라는 딸도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신뢰를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에 회기동으로 이사한 지하련은 서정주에게 “(임화는-인용자) 만나 보니 자기 마음에 맞는 사내가 아니”었다고 털어놓을만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을 시기였고, 1940년에는 결핵 판정을 받고 마산 산호리로 귀향하며 임화와 떨어져 있었던 시기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지하련의 ‘운동가 남편-아내 서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결별』, 『가을』, 『산길』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sup>16)</sup>

제11호, 1934.11.01, 245쪽. 당시 지하련에 대한 임화의 감흥은 『내 애인(愛人)의 면영(面影)』(『조광』 제4권 제2호, 1938.02, 285-287쪽)에 잘 드러난다.

- 14) 이렇게 임화는 지하련과의 감정적 교류로부터 가치관의 변화까지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울한 청년’이라는 시대적 감각은 고독을 생성했지만, 임화와 지하련 작품에 내재된 우울과 고독의 주체로서의 ‘청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임화에게 일방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전제되면서 그에게 애정을 주는 존재로, 또한 의존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지하련을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임화를 지하련의 영향하에 배치하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 15) 권성우, 『임화의 산문에 나타난 연애, 결혼, 고독』, 『한민족문화연구』 42권, 한민족문화학회, 2013, 310쪽.
- 16) ‘운동가 남편-아내 서사’와 ‘운동가 오빠-여동생 서사’는 서정자가 지하련 소설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활용한 ‘아내의 서사’라는 용어, 그리고 서승희가 파악한 ‘누

이 작품들을 독해함에 있어서는 귀향 및 임화와와의 단계적 이별로 인해 생성된 고독, 1939년 7월 17일 <남성폭격좌담회>에의 참석 및 좌담회에서의 발언,<sup>17)</sup>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에 드러난 질서에 대한 고민들이 참조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좌담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점을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기탄없이 비판”해달라는 흥미로운 목적 아래 개최된 이 좌담회에서 지하련의 소설 주제로 자리잡은 발언들을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그는 가부장적 남성 질서에서 평화란 남성의 ‘자기중심주의’와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강한 자존심으로 인해 여성과 달리 남성은 센터멘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감수한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그들의 ‘비극의 존재성’이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의 ‘배너주의’에 대해 말한다. 이는 선천성에 근거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현대적 용어인 여성 혐오와 그 맥락이 맞닿아 있는데, 이 용어가 조선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미

---

이의 재정위’를 참조하여 확장 및 보완한 개념이다. ‘아내의 서사’나 ‘여동생의 서사’ 대신 ‘운동가 남편’과 ‘운동가 오빠’와 결부한 용어를 제안하는 이유는, 지하련이 비판하고자 했던 조선 남성의 전형이 잘 부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신여성’이라는 표상에 한정하여 지하련과 그의 작품 속 여성 인물을 읽는 독법을 넘어, 비로소 사회주의자 내부의 젠더 위계 질서를 폭로하고 이에 균열을 만드는 지하련 작품의 젠더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작품 속의 인물들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를 둘러싼 실제 세계에서 작품의 모델을 발견하려는 당대 독서의 흐름과 임화의 아내로 먼저 이름이 알려졌던 지하련이 문단적 위치에 근거한다면, 임화/이상조로 읽힐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남편/오빠’의 앞에 ‘운동가’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지하련 작품군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서정자, 『지하련 전집』, 푸른역사, 2004, 363쪽;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2집, 한국문학회, 2016, 278-279쪽 참조)

- 17) 그러나 이 자료가 전면적으로 작품 해석의 근거로서 활용된 연구는 전무하며, 소개가 되었다하더라도 열 줄 내외로 간략했다. 이 자료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김경일·신영숙·정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이 유일하다.

루어 볼 때 지하련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 혐오에 대해서 정리·사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작품에서는 「결별」에서의 형제가 아내의 지위에 있으면서 남편의 자기중심주의로 인해 가정에서의 고독을 경험하고, 아내의 희생으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화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가을」은 ‘음란함’의 소문의 중심에 있는 여성인 정예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고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산길」에서는 앞서 제시된 두 인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재’와 ‘연희’를 직접 마주하게 하고 연희를 ‘총명’하고 ‘정직’하게 생각하며 동경하는 순재의 내면으로 마무리한다.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신여성은 가정 안과 밖에서 모두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며,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고독을 체험하고 이를 정면으로 맞서기를 바라고 있다. 즉 그는 여성의 희생으로 ‘남성의 질서’를 지켜야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결별」), 그렇다면 과감히 그 평화를 깨고 고독해져도 좋다는 생각까지 나아갔던 것이었다(「산길」).

### 3. ‘비판적 관찰자’로서의 지하련

#### 3.1. 오빠 이상조에 대한 비판적 관찰기-「체향초」

지하련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동경에서 함께 수학했던 셋째 오빠 이상조의 영향이 컸다. 이상조는 니혼대학 문예과에 다니는 도중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에 가입하여 선전부에서 일하고, 1928년 3월 21일에 열린 창립대회에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출판부장을 역임한다.<sup>18)</sup>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니혼대학에서 퇴학을 당했고, 곧바로 귀국한 그는 마산청년동맹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다 같은 해 6월



25일, 이상조는 마산부의 사립 호신학교 맹휴 사건의 선동자라는 혐의로 갑작스런 수색을 당한다. 이 사건은 『동아일보』에서 특종처럼 보도되었으며, 마산법원 창설 이래 3.1운동 관련 공판 다음으로 많은 방청객이 모였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상조를 지목한 학생들을 심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판단되었다는 사실,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한 이상조가 복심을 신청해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sup>19)</sup> 이는 이상조를 주동자로 만들고 최대한 긴 시간을 복역하게 만들기 위한 검사국의 압박이 반영된 공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험은 분명 이상조에게도 작지 않은 경험이었지만, 그는 출소 후 활동을 재개한다. 그는 1931년 7월 대구에서 열린 조선공산주의협의회 전국대회에 경북대표로 참석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대구노동신문』 등의 선전물을 작성·배포하였으며, 대구에서는 사회과학 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sup>20)</sup> 그러던 1933년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물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상조는 이 시기의 복역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고 산호리에 은둔하였고, 약 3년이 지났을 때 지하련이 요양 차 귀향하여 이상조와 5개월간 함께 살게 된다. 『체향초』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상조

18) 이상조의 해적이에 대해서는 이장렬, 「지하련의 가계와 마산 산호리」, 『지역문화연구』 제5호, 경남부산지역문화학회, 1999을 참조하였다. 다만 지하련을 복원함에 있어 『체향초』라는 작품을 다룰 때 이상조의 행적은 보다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1차 자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였다. 따라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조를 복원하되, 이장렬의 논문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은 각주를 통해 그 출처를 밝히는 방식을 취했다.

19) 「호신맹휴생판결(濠信盟休生判決)-대개는 집행 유예로 출옥해」, 『동아일보』, 1928.08.14, 5면; 「일심(一審)보담 중(重)한 복심구형(覆審求刑)」, 『동아일보』, 1928.10.20, 2면; 「호신교맹휴생(濠信校盟休生) 공소공판판결(控訴公判判決)」, 『동아일보』, 1928.10.27, 2면; 「마산(馬山) 신교맹휴생(新校盟休生) 3명(三名)은 부대공소(附帶控訴)」, 『동아일보』, 1928.08.19, 5면. “신교(新校)”는 기사 내용 및 다른 기사를 참조해서 볼 때 “호신교(濠信校)”를 의미한다.

20) 이장렬, 앞의 논문, 116쪽.

의 관찰기이다.<sup>21)</sup>

지하련은 이상조의 관찰자였다. 유학 시절부터 퇴학, 귀국, 피검까지 모든 걸 지켜보았으며, 검거, 출소, 운동을 반복하던 이상조와 뜻을 함께하여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오라버니의 모습은 산호리에서 “양과 도야지와 닭들”을 키우며 사는 모습이지, 대구와 경북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회주의 운동가의 모습은 아니었기에 지하련은 낯섬을 느낀다.

이런 오라버니의 모습은 1930년대 말에 쏟아져 나온 전향소설의 전형적인 사회주의 운동가의 모습을 닮아있다. 다만 이 작품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누이이자 주인공인 삼희가 오빠의 생활과 태도에 공감하고 연대하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포착·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체향초』가 누이의 시선으로 되어 있다는 데서 가능해진다. 즉 삼희는 오라버니와의 감정적 유대의 기억이 잔존한 상태를 경험하면서도 이전에는 몰랐던 거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삼희는 오라버니의 달라진 생활에 대해 ‘존경’을 전제하며 공감의 회복을 기대한 채 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내 실패하는데, 여기에는 태일이라는 인물이 그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태일은 명량한 제국의 질서에 편승한 인물인데, 오라버니는 남성성을 잃은 자신과 달리 태일은 그렇지 않다며 동경하는 동시에 ‘너이들 적은 창조물’과 같이 삼희를 위시한 여성들을 타자화하며 끊임없이 위계를 두려고 시도한다. 지하련은 누이의 목소리를 통해 남성

21) 『체향초』가 자전적 소설이라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산호리라는 배경과 남자 주인공에 대한 설명은 이상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 시선을 오빠를 관찰하는 ‘여동생’의 관점으로 둔다는 점, 당시 결핵에 걸렸던 지하련처럼 주인공 삼희 역시 요양을 위해 귀향했다는 점, 지하련이 내려갔던 시기인 5월의 마산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외스딸”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지하련을 연상하게 한다. 그 외에도 “오라버니가 없는 동안 그는 자라서 시집을 갔고, 오라버니가 다시 돌아 왔을 때 그는 얘기를 가진 셈”이라는 설명 역시 이상조와 지하련의 삶의 족적(이상조 1933년-1936년 복역, 지하련 1935년 결혼 및 1936년 7월 원배 출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작품 속 주인공의 관계와 일치한다.

들의 이러한 태도를 직시하면서 그런 행위는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서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전향소설에서 전형적인 서사 계보를 잇는 ‘우울한 형’의 공통점이 바로 『채향초』의 오라버니와 같은 자기혐오, 자기방어이다.<sup>22)</sup> 그런데 그것이 형과 동생이 아닌 ‘오빠’가 되었을 때 자기방어의 이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오라버니를 관찰하는 여동생을 화자로 선택한 지하련의 시선에는 이상조의 선택에 대한 연민 및 공감과 함께 공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기입되어 있었다. 이렇듯 지하련은 오빠의 삶을 존경하면서도 그들이 행하는 ‘배너주의’에는 침묵하지 않는 여성인물을 통해 연민과 비판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배너주의’의 본격적 형상화, 호모소셜리티(『종매』)와 호모섹슈얼리티(『양』)

『종매』, 『양』은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연대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호모소셜한(『종매』) 혹은 호모섹슈얼한(『양』) 관계를 갖는 남성들에 의해 여성이 배제된다. 『채향초』와 더불어 이 작품들 속의 누이라는 존재는 지하련의 작품 세계에서 남성들에 의해 혐오되면서 불길한 존재로 그려진다.<sup>23)</sup> 서승희의 표현을 빌리자면, “누이의 재정위”인 것이다. 이렇게 누이를 재정위하는 과정에서 지하련이 누이를 둘러싼 남성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가 그리고 있는 남성들 간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배너주의를 중심으로 『종매』, 『양』을 볼 때 호모소셜한, 그리고 호모섹슈얼한 남성들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가

22) 김철, 『우울한 형/명랑한 동생-중일 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식민지를 안고서』, 역락, 2009, 185쪽.

23)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2집, 한국문학회, 2016, 278-279쪽.

오빠'와 오빠의 친구들의 '배너주의' 및 '배너'당하는 누이 재현에 집중하여 지하련의 두 작품을 재독해보자는 것이 이 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매』에서 운각사에 도착한 석히는 원이가 돌보고 있던 병에 걸린 화가 철재와 한 공간에 머물면서 그를 돌보게 된다. 어느 날 밤에 석히는 철재에게서 '순수한 고독'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공감은 석히와 철재 사이에서만 형성되고 있는데, 철재가 원이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석히의 모습은 호모소셜의 기본 원칙인 여성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후 석히의 친구 태식이 이 호모소셜한 사회 안에 편입되면서 원이를 주시하게 되면서, 원이는 이 사회에서 더욱 대상화된다. 태식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원이에게 석히는 태식과의 '화친(和親)'을 강요한다. 이때 석히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데, 화친의 강요가 일어나는 것도 태식과의 관계로 한정되고 있을 뿐더러, 막상 원이가 태식과 공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순간에 석히는 문제를 외면한다. 태식이 석히의 가치관에 대해 폄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는 원이의 언어를 금지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인데, 이는 『도정』의 석재가 가지는 우울과도 연결된다. 석히는 이렇게 '사나이들의 편협하지 않은 우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이를 활용하면서도, 원이의 주체성은 호모소셜한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기에 '친진한 여동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원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지하련은 마지막 장면에서 "철재를, 혹은 태식이를"<sup>24)</sup> 찾지만 할 뿐, 원이는 찾지 않는 석히를 징벌한다. 이 작품은 『채향초』에서의 연대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어렵פות하게 드러났던 호모소셜과 배너주의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양』은 성적 대상화를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즉 증상화된 배너주의를 겪는 형태로 호모섹슈얼이 증명된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여성의 목소리는 이전 작품들에 비해 소략화되었고 두 남성 주인공의 관계가 부

24) 지하련, 『중매(從妹)-지리한 날의 이야기』, 『도정(道程)』, 백양당, 1948, 264쪽.

각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와 행위에서는 지하련이 조선 남성의 특성으로 파악했던 ‘감정 숨김’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주인공 성재는 정래와 함께 산 속에서 양을 키우며 살아간다. 정래에게는 정인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성재는 오랫동안 알아온 이 여성에게 흥미를 느껴보려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은 ‘어지러움’이라는 증상만을 유발한다. 반면에 정래의 얼굴을 보면서는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 두 장면을 참조하여 보면 성재의 성애적 사랑의 대상은 정인이 아니라 정래라는 사실이 확실시된다. 정래 역시 성재에게 단순히 우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짐작되나, 두 사람은 각자의 감정과 질서를 상대에게 강요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벽한 애정 관계로 진전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두 남성은 각자 상대방의 자기중심주의로 인해 ‘고독’을 경험한다. 배녀주의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두 남성 사이의 여성의 존재는 성적 대상으로서도 무가치해지며, 남성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주의적 질서 체계를 애정의 대상에게 강요하고 감정의 표출을 꺼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체향초」, 「종매」, 「양」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하련의 작품 세계는 남성의 욕망에 충실하게 응하지 않거나, 아예 대상화가 불가능한 여성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배녀주의를 보여주고 ‘남성 연대’에 균열을 가한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그가 추구해온 여성해방주의의 맥락 하에 놓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일제 말 ‘우울한 청년’의 옆에 있었던 ‘여동생’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해방기, 관찰자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로

##### 4.1.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도정」의 탄생

해방 후 지하련의 공식적 첫 행보는 조선부녀총동맹(이하 부총) 가입

이었다. 당시 남한 내 유일한 좌익여성단체였던 부총은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필연적 연관 관계에 대해 주지하고 있었다. 부총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성격은 “농민, 소시민 부녀, 지식인 등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견해와 “여성공산주의자들의 모임 또는 남로당원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는데,<sup>25)</sup> 후자의 견해의 근거에는 임화의 아내였던 지하련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해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지하련의 해방 후 행보가 단순히 임화의 사상을 따랐던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도 아닌 조선부녀총동맹을 선택하여 활동하던 지하련의 행보 속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남성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일면과 함께, 여성해방과 사회주의를 두 축으로 하고 있었던 오래된 고민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방 이후까지 연속되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고민의 한편으로, 지하련은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공고히 한다.<sup>26)</sup>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는 조선문학가동맹 소설부 가입 및 제1회 소설가간담회 참석이었다. 지하련은 여기서 여성 작가로서는 유일한 참석자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하련이 문학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일제 말에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복귀와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임화의 부인으로서 가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데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삶의 차원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여성해방’은 아이러니하

25)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45쪽.

26) 지하련이 해방 후 발표한 첫 작품은 소설이 아니라 잡지 『학병』에 발표한 「어느 야속한 동포가 있어」(1946.02)라는 시였는데, 그는 여기서 스스로를 ‘소설가 지하련’이라고 소개한다. 물론 1942년 2월 『조광』에 발표한 수필 「겨울이 가겨들랑」에서도 글의 말미에 “필자는 소설가”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 시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소설가라고 칭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후 행보들을 살펴보면, 해방 이전에 비해 소설가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욕망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계도 남성들 사이에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이 연대를 옹호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작품 속 ‘고독’을 통해서 해명할 수 있으며, 삶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해방 직후의 행보가 그가 추구하던 지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지하련은 이 간담회에서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 서민”들이 ‘개성’이 ‘불구의 발전’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문학이란 “자연과 함께 싱싱하게 완전”해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인데 현재는 발전은 하되 불구의 발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7)</sup> 여기서 정치적 서민을 ‘인민’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때, 인민의 ‘개성’이 없는 맹목적인 공산당 추종은 ‘인민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되는 행위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도정』에서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차운 면에 어딘지 죄스럽고 염채 업어 제가 미워”지는 사람이자, 해방 이전에는 “어두운 방 속에 있던 사람”이었던 ‘석재’라는 인물로 재현되었다.

『도정』은 잡지 『문학』 창간 후 약 1주일 후에 창설된 해방기념문학상에서 수상한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최종까지 경쟁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이 작품은 해방 이전까지 은신했다가 해방이 되자 거리로 나온 주인공 ‘석재’의 이야기를 다룬다. 석재는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은신했던 사회주의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운동가 오빠-여동생 서사 속 오라버니, 석히 등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런데 『체향초』나 『종매』에서도 그러했듯이 그는 분명히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음에도, 해방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한다. ‘자랑 없던 삶’의 시간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석재는 해방 전부터 자본가로 거리에서 활동하던 친구 기철을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다고 고백이다. 해방공간에서 벌어진 이 ‘고백’은 『체향초』에서 오라버니가 계속 감정을 숨기던 것과는 대비된다. 석재의 고백은 해방공간에서의 타자와의 연대 및 새로운 질서를 요청하는 첫 번째 신호이다. 그러나 고백의 이면에 내재된 고독에는 석재의 양심

27) 『제1회 소설가 간담회』, 『민성』 제2권 제6호, 1946.4, 5쪽.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가 느끼는 고독은 해방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와도 결부된다. ‘강’처럼 끝까지 운동에 투신한 것도, ‘기철’처럼 사업을 해낸 것도 아닌 상태임을 지각했을 때 그가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무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현재에서의 무력함은 석재가 고독을 느끼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후 기철이 공산당의 최고 간부가 되어 있다는 ‘공산당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당황과 분노, 실천하지 못한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의 굴레에 시달리고 이 죄책감은 신체화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석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그것은 해방공간에서조차 고독하고 우울해질 수 없었던 ‘청년’이 취해야만 했던 정치적 포즈였다. 이 망설임을 해결하고 공산당 입당서를 적게 만드는 것이 기철에 대한 부러움과 외로움인데, 이때 석재가 주저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젊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평 때문이었다. ‘푸르름(靑)’의 표상은 아닐지라도, 해방기의 ‘청년’과 젊음이란 뜨거움을 상기시키면서 새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주체이자 동력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젊은 청년’은 건국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옳은 것’이 있는 공산당에 입당해야 한다. 이것은 석재에 있어서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했다.

입당서 직업란에 ‘소부르주아’라고 적는 석재의 행위는 그가 추구하는 ‘젊은 청년’이 되기 위한 솔직한 자기 인정으로서, 새 질서 건설을 위한 발걸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결말은 문자적으로만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함께 던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산당을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었던 지하련의 정치적 입장과의 연결지어 보았을 때, 이 질문은 더욱 당대 사회주의자의 윤리의 문제도 상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도정』이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연간 최소 한 번은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이 작품이 해방공간에서 얼마나 문제작으로 읽히고 있었는지에 대해 짐작하게 해준다. 조선문학가동맹과 같은 좌파 문인들뿐만 아



나라 우파 문인까지 공감하게 만든 이 작품은 류진희의 분석처럼, “좌우 간의 서사”이면서,<sup>28)</sup> 해방 후의 질서로부터도 여전히 소외되어 고독했기에 풀어낼 수 있었던 서사였다. 지하련은 세계를 보는 시선과 감각을 확장하고 이를 설득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자신이 질서에는 안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는 「도정」 이후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창작집 발간을 위한 원고 수정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는 수필과 콩트를 남겼는데, 이 작품들에는 ‘남한의 질서’라는 거대한 질서로부터 경험한 소외와 이로 인해 발생한 ‘고독’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하련이 다른 질서를 찾아 떠나는, 즉 월북의 결정적인 경험이었다.

#### 4.2. 고독의 종착점으로서의 「광나루」와 월북

1947년 4월 10일에 『문화일보』에 발표한 「여인일기-봄」은 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해방 직전과 해방 후에 대한 지하련의 감각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해방 직전 피바람이 불었던 장안을 떠올리며, 지금도 역시 긴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 “낯선손님”을 대면해야만 하는 상태이다. 지하련에게 봄은 노여움밖에 없었으며, 여전히 노여운 상태로 남아 있다. 해방의 표상으로서의 ‘봄’은 여전히 도달하지 않았고, 해방 후 3년이 지난 1947년에도 여전히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방공간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이 글을 발표한 지 8개월 후인 1947년 12월에 발표한 콩트 「광나루」에서 심화 되어 나타난다. 사실상 지하련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38선 이북으로 추정되는 “먼 곳”으로 떠나려는 P부인과의 이야기가 담긴 콩트이다. “특(特)히 여자(女子)들의 사귀이란 흔히 그 처지(處地)가 같든지 처지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의 처지(處地)를 이해(理解)하고 공감(共感)할 수 있을 때 쉽게

28)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0쪽.

매저지나 보다”라는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으로 시작하는 이 수필은 지하련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화자 ‘나’의 감정 변화를 담고 있다. 동년배였던 P부인은 서울에 친지가 별로 없는 ‘나’와 가깝게 지내주었던 사이였다. P부인은 어느 날 ‘나’를 불러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겠다고 말하고, 얼마 뒤 P부인을 찾아간 나는 “이불보통이 고리짝 추렁크, 이런 것들이 함부로 놓여진 방에서 다섯 자녀와 두 동생과 부인이 경황없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놀라고 만다. 와중에 P부인은 손님 대접을 하겠다고 ‘나’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 한강을 함께 바라본다. 강물의 경치를 칭찬하고, 아침이 되면 꼬마들이 차를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하며 소리내어 웃는 P부인과 달리 나는 웃지 못한다. ‘나’는 오히려 P부인의 배웅을 받고 돌아오는 막차에서, “마음이 몹시 언짢”음을 느낀다.

1947년 초부터 미군정을 포함한 우익진영에 의해 조선문학가동맹이 탄압을 겪고, 1947년 8월은 좌익인사들이 대거 검거되었던 시기이자 대대적 월북이 있던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임화 역시 같은 해 11월 지하련을 서울에 남겨두고 먼저 월북했다는 점 등의 역사적 배경들을 볼 때 지하련은 서울에 세워지고 있는 이 질서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의 인민항쟁은 시간이 갈수록 “극좌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었다.<sup>29)</sup> 그는 서울로부터 소외된 ‘개인’이자 자기자신을 드러낸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월북한다.

## 5. 결론

월북 이후 지하련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평북 희천 근처 산간 오지로 끌려가 교화소에 격리 수용되었고, 울며불며

29) 이양숙, 『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학-1945년~1948년 <문학가동맹>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27쪽.

평양 시내를 헤매고 다녔으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여자가 임화의 아내’라고 수군거렸다는 소문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하련의 마지막에 대해 들려오는 이 ‘소문’은 남로당 미군간첩 사건으로 희생된 남로당원들의 비극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임화(남성)의 부재가 온전한 지하련(여성)을 해체하여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생성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남성적 질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지하련이, 다른 여성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극적이고 신파적인 ‘소문’의 대상으로만 남았다는 것 역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우회’와 ‘좌담회’ 활동을 생의 중심 사건으로 두는 방식으로 지하련의 ‘작가론’을 전개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와 작품 속에 여성해방주의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았던, 혹은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모호하고 약하게 서술되었던 여성해방론과 지하련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한 것은 본고에서 성취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작품은 폭발하지 못하고 내재된 여성해방주의와 자아의 균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을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여성문학사에서 여성해방주의와 여성 문인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나혜석만을 대표적 ‘해방 주자’로 호명하는 방식을 재고하여 그를 ‘실천과 절망’의 한 축으로 두되, 폭발하지 못한 또 다른 축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본고에서 수행했듯 지하련의 여성해방주의를 ‘진정성’으로 재단하지 않을 때, 비로소 더 많은 여성문인들의 목소리에 ‘해방’이 기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동아일보』, 『민성』, 『삼천리』, 『조광』, 『중외일보』, 『학병』

### 2. 단행본

김경일·신영숙·정현주 지음,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401~412쪽.

김인덕 편, 『식민지시대 민족운동사 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166-168쪽.

김 철, 『식민지를 안고서』, 도서출판 역락, 2009, 185쪽.

백상현, 『고독의 매뉴얼-라깡, 바디우, 일상의 윤리학』, SFP-위고, 2015, 114쪽.

서정자, 『지하련 전집』, 푸른역사, 2004, 363쪽.

정영진, 『통한의 실종문인』, 문이당, 1989, 107~146쪽.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사(三英社), 1983, 185쪽.

### 3. 논문

권성우, 『임화의 산문에 나타난 연애, 결혼, 고독』, 『한민족문화연구』 42권, 한민족문화학회, 2013, 287~318쪽.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 전략 :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76쪽.

문경란, 『미군정기 한국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152쪽.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7~30쪽.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2집, 한국문학회, 2016, 261

~287쪽.

서정자, 『일제 강점기의 한국여류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212쪽.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1920년대~19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201(Discourse 201)』 제9권 제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37~76쪽.

이양숙, 『해방기 문학비평에 나타난 ‘기억’의 정치학-1945년~1948년 <문학가 동맹>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281~307쪽.

이은경, 『모성·참정권·전쟁 그리고 국가-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6, 79~113쪽.

이장렬, 『지하련의 가계와 마산 산호리』, 『지역문화연구』 제5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9, 111~130쪽.

임정연, 『시대의 공동(空同), 역사의 도정(道程)을 걸어-지하련의 삶과 문학의 궤적-』, 『이화어문논집』 제41집, 이화어문학회, 2017, 198~205쪽.

장윤영, 『지하련 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4쪽.

